

국민연금, 대체투자 확대 나서기로

수익률 제고에 더욱 집중

국민연금이 경제성장률 하향과 출산을 저하 등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 등 대체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부발에서 "올 한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 속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는데, 출산을 저하를 반영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장기간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기금위는 수익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체투자란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보다 수익·위험 특성이 높은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투자 자산을 말한다. 그간 수익률 제고에 기여해 온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여건 및 시장상황 등으로 실제 집행은 투자 목표에 미치지 못해왔다. 기금 전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있다는 게 기금위 판단이다.

이에 기금위는 ▲대체투자 투자 결정과정 간소화 ▲헤지펀드(시장상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집합투자기) 투자 시 상급펀드(기금위가 투자과정 중간단계 직접 수행) 방

식 도입 ▲신규 대체투자 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 투자 허용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최대 두 달(8주) 걸렸던 대체투자 결정 소요시간을 한 달(4주)로 줄이고 위탁사 선정, 포트폴리오 구축, 리스크 관리 등 중간단계를 기금위가 직접 결정해 헤지펀드 투자 시 위탁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신규 자산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투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금위는 보고 있다.

지난 3차 위원회 때 일부 위원이 제안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뒤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등 관련 규정 등의, 이행을 확실한 자를 전문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애초 보고 안건 중 하나였던 한

진갈 주식보유목적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경영참가' 목적의 한진칼 주식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바꾸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율은 4.11%로 5% 이하로 줄어들어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안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5%룰' 적용은 받지 않는 상태다.

대신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에 대해서 향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향후 5년간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중기자산배분안(2020년~2024년)에 대한 중간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최종 자산배분안은 다음 기금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



전북농협이 어린이날을 맞아 최근 완주군 소양면에 소재한 선덕보육원을 찾아 지역사회의 나눔 실천 봉사활동을 했다.

전북농협, 선덕보육원서 나눔 실천 봉사활동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어린이날을 맞아 최근 완주군 소양면에 소재한 선덕보육원을 찾아 지역사회에 나눔 실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홍종기 전주완주시군지부장, 유해광 소양농협 조합장 등 전북농협 임직원들과 선덕보육원 어린이·청소년들이 함께 저녁식사로 삼겹살, 과일 등 우리 농축산물로 파티를 했다. 전북농협 임직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며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으며 식사 후 미래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도 전달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 실천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도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 실천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가정의 달 기념 정기 예금 가입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가정의 달을 맞아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협은행 디지털채널(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에서 정기 예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취약계층 정기 예금 가입 이벤트'를 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농협은행 디지털채널에서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고객 중 총 1,541명을 추첨해 부모님을 위한 450만원 상당 안바의자(1명), 부부를 위한 커피스파 이용권(10명), 자녀를 위한 한산인 아이홍삼(30명), 가족을 위한 프래오래 치킨 모바일쿠폰(500명), 나를 위한 스타벅스 싱글디저트세트 모바일쿠폰(1000명)을 가족 구성원 취향 맞춤형 경품으로 제공한다.

김장근 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을 통한 고객 중심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모두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달고기 전문기업으로 자연을 담은 건강한 먹거리로 식문화를 선도하는 (주)하림은 3일 익산시 마동 하림지주 로비에서 박길연 대표와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 나운철 본부장, 학교 관계자,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림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김영태 기자



하림이 지난 3일 익산시 마동 하림지주 로비에서 '하림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도시락을 전해요"

하림, 어린이날 맞아 익산 초·중 4개교 학생들에게 사랑의 도시락 전달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 날을 맞아 (주)하림이 익산지역 밥 굶는 초등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아침머피' 조식사업을 실시했다.

달고기 전문기업으로 자연을 담은 건강한 먹거리로 식문화를 선도하는 (주)하림은 3일 익산시 마동 하림지주 로비에서 박길연 대표와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 나운철 본부장, 학교 관계자,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림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익산지역 고현초교 등 4개교 '아침머피' 조식 지원사

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용기리와 치킨네트 등 튀김요리와 핫도그 등 하림의 인기제품을 담은 특별 도시락을 마련해 전달했다.

하림의 '아침머피' 조식지원사업은 지난 2월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과 협약을 맺고 익산지역 4개 초등학교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아침머피' 사업의 현장 확인과 실천을 위해 어린이 날을 앞두고 특별 이벤트를 계획한 것이다.

이날 도시락을 전달받은 송학초 김다은(4학년, 가명)양은 "매일 학교에서 밥을 먹으니 좋아요. 오늘은 맛도 있고 예쁜 도시락을 선물로 받아서 더 좋아요"라며 "매일 어린이 날이었으면 더 좋겠다"고 애교를 부렸다.

'아침머피'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송학초 서선희(56)교장은 "조식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결식을 낮추고 표정이 밝아지는 등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돼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원 기자

LX, 아이디어 공모전에 국민투표 점수 반영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사장 최창학)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국민투표 점수를 반영한다.

LX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사회적 가치 UP, 톡(talk)톡(talk)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된 73개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국민 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LX 홈페이지(www.lx.or.kr) '국민소통플랫폼'에서 진행되며,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좋아요' 버튼을 눌러 참여할 수 있다.

국민투표점수는 득표비율에 따라 최종결과에 30% 반영되며, 최종 선정 아이디어는 외부위원 심사와 자체심의를 거쳐 24일에 선정된다.

선정 아이디어 제출자에게는 대상(200만원, 1명), 최우수상(100만원, 1명), 우수상(10만원, 6명) 등 총 36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창학 사장은 "국민 아이디어를 듣는 것부터 평가하고 실제 적용하는 데까지 함께 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제로페이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5일부터 대보유통에 위탁운영 중인 2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에 195개가 있으며 하루에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약 435만대이다.

25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전국 195개의 모든 휴게소로 확산하고, 휴게소와 더불어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KTX역사(367개)에도 6월말까지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관리업체와 임직원체 간의 상생과 공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가 더욱 소비자

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국민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별에 맞는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5월 2일 서비스를 시작한 편의점과 이번 고속도로휴게소로 시작으로 기타 공공시설 및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더욱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결제사업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로페이에 대한 혜택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과 김재현 사무관(042-481-3957)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